



안전은 관심과 실천에서 찾아온다 (주)누벨피엔에스

취재 김성태 기자 glshu002@safery.or.kr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잘 포장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장은 단순히 내용물의 외형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포장은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물론 품질유지,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소비자들의 손에 무사히 전달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철강제품에서 포장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제품이 냉연제품이라면 더욱 그렇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방청, 방수, 미적 등의 기술이 모두 동원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누벨피엔에스가 업계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누벨피엔에스는 창립 이래로 꾸준한 포장 공정 개선 및 포장자재 개발 등에 매진한 결과 철이 가진 특성과 단점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철강포장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 설립된 신생기업이지만 지난해까지 모두 5번이나 현대하이스코(주) 당진공장의 최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될 만큼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처럼 (주)누벨피엔에스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안전이 자리 잡고 있다.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하는 공정이 이뤄지는 회사에서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주)누벨피엔에스를 찾아가 봤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무재해 비결**

2005년 5월 법인설립과 동시에 충남 당진에 자리를 잡은 (주) 누벨피엔에스. 이곳은 설립된 이후 곧바로 무재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렇게 안전에 대한 포부와 의지는 컸지만, 절망적인 순간은 찾아오야 말았다. 공장이 가동된 지 불과 5개월이 흐른 10월 말에 크레들롤(Cradle Roll)에서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이곳에서는 더욱 철저하고 세심하게 안전관리를 해나갔다.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월 2시간씩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안전표어 공모전, 안전 제안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또한, 아차사예 발굴, 위험예지훈련, 응급사항 조치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안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주)누벨피엔에스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NSC(Nouvelle Safty Clean)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NSC는 사고예방을 위해 불안정한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고, 안전을 생활화해 나가는 안전경영운동이다. 회사 전 직원이 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자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정도로 이곳 안전관리에는 빈틈이 없다.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주)누벨피엔에스에서는 현대하이스코(주) 당진공장에서 양산되는 냉연제품(COLD COIL-CR, GA, GI, PO, HGI, FH, CC 등)에 기능성(방수, 방청) 포장을 하는 공정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CPL(COIL PACKING LINE)이 운영되고 있으며, 워킹빔(Walking Beam), 크레들롤(Cradle Roll)등의 갖가지 설비가 들어서 있다. 그만큼 협착, 추락 등의 사고 위험이 큰 것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4M(Machine, Media, Man, Management) 기법을 활용해 설비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CPL 특성에 맞는 위험예지훈련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각종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도 모색하게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도출된 의견들은 사내에서 공유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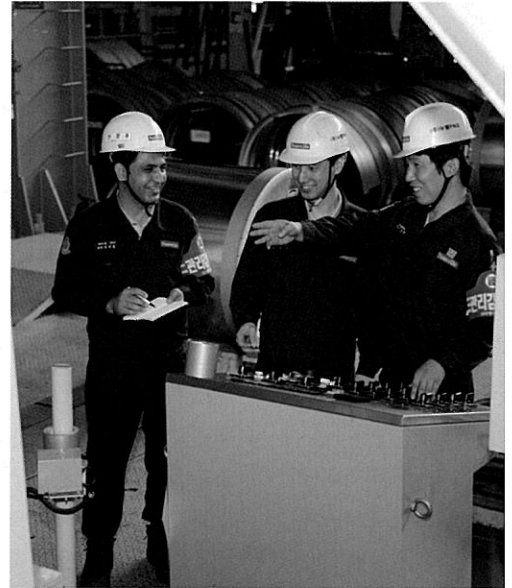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현대하이스코(주)와 함께 공생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분석·개선하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주)누벨피엔에스에서는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천을 강조하는 안전활동 전개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안전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안전 시스템이 있어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은 (주)누벨피엔에스에도 자리 잡고 있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지적확인'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설비에서 문제가 생겨 점검 또는 조치를 해야 할 때에는 설비의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DESK PANEL 'LOCK'설정, 안전표찰 등)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안전실천 의지는 사회안전을 위해서도 발현되고 있다. (주)누벨 피엔에스에서 정기적으로 당진군 일대의 사회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회사 관계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철저한 안전관리와 높은 안전의식이 바탕이 되면서 (주)누벨엔피에스는 지난 4월 무재해 7배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곳이 무재해 10배를 넘어 20배, 30배 또 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미니 인터뷰

모두의 노력이 무재해 달성을 이끕니다



박순목 대표이사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핏 보면 참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불감증도 하루 빨리 버려야 합니다. 경영진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근로자가 사고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 지킴이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안전해야 진정한 안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터, 안전으로 만들어 갑니다



서경한 소장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안전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8조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산재를 조금만 줄여도 국가발전에 엄청난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주)누벨피엔에스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저희 회사에서는 3정5S를 기본으로 모든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맡아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한다면 무재해 30배수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확신합니다.